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尹 당선무효 시 국힘 '400억 반환'



'400억 반환' 위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멈춰 있던 선거법 수사가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인인 김건희씨의 주가 조작 의혹을 두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불소추 특권에 따라 수사가 중지된

상황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수사 재개가 가능해졌고, 명태균 게이트까지 터지면서 당선 무효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받은 397억원 규모의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선거보조금 전액 반환이 현실화된다면 정당 파산도 우려된다.

“지하철 역사서 유모차 무료 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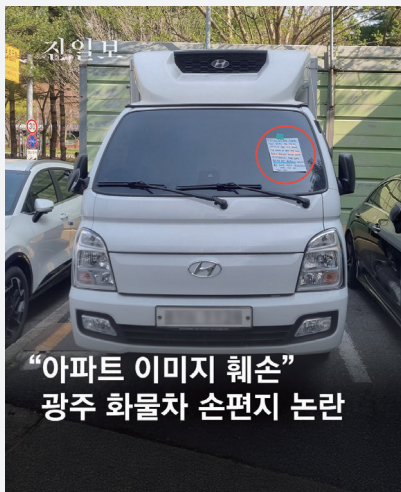


지하철 역사서 유모차 빌려타세요

광주도시철도가역사 내 유모차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모차 무료 대여 서비스는 아동 친화 도시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동반 승객의 이동 편의 개선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광주도시철도를 이용하는 5세 이하의

영유아 동반 승객은 남광주역과 문화전당역, 금남로4가역, 농성역, 운천역에서 유모차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최대 5시간까지 유모차를 대여할 수 있다. 광주도시철도는 시범 운영 후 실적을 분석해 대여 역사와 유모차 추가 비치 등을 검토한다.

“화물차는 뒤에 주차” 입주민 불편지 논란



“아파트 이미지 훼손” 광주 화물차 손편지 논란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물차는 건물 뒤편에 주차해 달라는 내용의 손편지가 붙어 논란이 일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차별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손편지 사진에는 ‘입구는 아파트의 얼굴’이라며 ‘트럭은 뒤편에 주차하거나 회사에 배달’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해당 차주는 ‘주차 구역에 잘 주차했는데 부당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취재 결과 해당 아파트 규약에는 차종별 주차 제한은 없었고, 입주민 차별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관리사무소는 손편지를 제거하고, 작성자에게는 사과문을 전달하라고 조치했다.

차범근 전 해설위원 ‘무주 명예 군민’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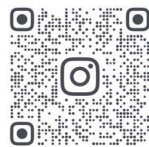


무주 명예 군민 ‘차범’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차범근 전 해설위원이 전북 무주군 명예 군민으로 위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202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차범근 축구 교실과 무주군의 인연이 바탕이다. 서울 용산구와 고흥군에서 축구 교실을 운영 중인 차 전 해설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내 전지훈련을 시작했다. 이때 인연을 맺어 무주군에서도 초등학교 축구 클리닉을 열어왔다. 또 무주군 홍보를 위해서도 협력했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한 점까지 인정받았다. 차 전 해설위원은 “아이들을 보다 건강하고 맑게 키우는 것이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인재 양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서예지 “취미가 가스라이팅” “딱딱”

SNL 출연… 논란 정면돌파

배우 서예지(사진)가 김정현 가스라이팅과 김수현 양다리설에 정면돌파했다.

서예지는 지난 12일 공개한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7 2회 호스트로 등장했다. 오프닝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열심히 하겠다”며 “SNL 크루들을 다 가스라이팅 해 재미있게 해보겠다”고 각오했다. 개그맨 신동엽이 “맞다. 서예지씨 취미이자 특기가 가스라이팅이다. 당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자, 크루들은 손을 번쩍 들었다.

코너 ‘서예GPT’에서 서예지는 인공지능(AI)으로 변신했다. 김원훈이 뒷담화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서예지는 “진짜 쪽팔리는 건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앉아서 씹히는 것”이라며 “그게 얼마나 억울한 건데. 나도 많이 당해봤다”고 털어놨다.

김원훈은 서예지에게 폭 빼졌고, 동료들은 ‘AI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새로운 AI ‘답식’(이수



지)을 설치했다. 서예지와 이수지는 김원훈을 두고 경쟁했고, 제니의 ‘만트라’ 춤 대결도 벌였다. 결국 김원훈은 이수지를 택했지만, 개인

정보만 탈취 당해 폐인이 됐다. 서예지는 “나 없이 못 산다니까”라고 했다.

코너 ‘이브 미용실’에서 서예지는 미용실 원장으로 등장했다. 목을 마사지 하며 “많이 굳었다”고 하자, 김원훈은 “많이 딱딱하다”고 언급했다. 서예지는 표정이 굳었다가, “아니다. 단단하다”고 정정했다.

서예지는 2020년 7월 옛남자친구 김정현 가스라이팅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김정현을 ‘김딱딱’이라고 불렀으며, 상대적인 서현은 물론 여성 스타프들에게 “딱딱하게 대하라”고 했다. 이후 학교 폭력, 학력 위조, 갑질 논란까지 제기, 2023년 말 광고료 절반인 2억2500만원을 반환했다. 뉴스

배철수 “‘난가병’ 걸려 헛꿈 꾸고 과대망상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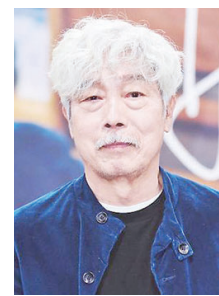
라디오서 영화 ‘콘클라베’ 소개
일각선 대선 주자·정치적 해석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를 향해 ‘난가병’(다음 대통령은 나인가라는 의미)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일각에서 DJ 배철수(사진)의 라디오 방송 중 발언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나섰다.

배철수는 지난 9일 오후 MBC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에서 “예전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대인의 난치병이 된 질병 중 하나가, ‘난가?’ 병이다. 이 병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고, 객관적 자기 평가를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배철수는 “보통 사람들은 ‘아니, 난 아니야. 난 그런 그릇이 못 돼’ 하면서 주제 파악을 잘하는 걸로 난가병을 예방한다”며 “그런데 특정 집단의 인물들은 메타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자주 과대망상증을 보이곤 한다”고 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영화 ‘콘클라베’를 두고 한 것이었다.



다툼과 음모, 배신을 다룬 작품이다.

배철수는 “영화 ‘콘클라베’에서 빈자리를 놓고 여기저기서 ‘어? 저 자리에 적임자가 난가?’ 헛꿈을 꾸는 사람들이 보인다”며 “난가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자기 성찰을 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영화를 언급하며 꺼낸 것이었지만, 일부 정치자들은 실시간 라디오 게시판을 통해 “18명의 잠룡들 이야기 같다”, “대선주자들 난가병 고쳐야 한다”, “정치인들한테 생기는 난가병”이란 댓글을 남겼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커뮤니티 등에서도 그의 발언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뉴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